

꿈은 이루어진다

글 | 장영수 _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메카닉스연구센터 선임연구원 yschang@kist.re.kr

2002년 여름밤, 온 국민을 열광하게 했던 월드컵에서의 짜릿하고, 흥분된 경험은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평소 보지 못했던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의 천재적인 볼 다루는 솜씨나 막강한 팀의 유기적인 경기 운영에 감탄했다. 경기장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붉은 악마들도, 축구 룰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어린이들도 한국의 승리를 위해 응원하는 모습은 매우 놀라운 경험이었다. 관중들의 응원 중 불거리 하나는 붉은 악마의 주도 하에 경기 때마다 이루어졌던 카드섹션이었다. 각 경기마다 적절한 문구를 보여줘 국민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었다. 결승진출의 마지막 관문인 4강전에서 문구는 '꿈은 이루어진다'였다. 제1회 우루과이 월드컵 이후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던 한국팀이 단숨에 16강을 넘어 8강, 4강에까지 오르는 신화를 잘 표현한 문구였다.

어린시절 꿈꾼 과학자 vs 현실의 과학자

뜬금없이 때 지난 월드컵 얘기를 꺼낸 것은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성취하였던 가장 훌륭한 성공 모델이라고 생각해서이다. 월드컵 4강 신화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온 것이었을까?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운, 정치적 문제(모 정치 지도자의 대권욕), 히딩크라는 리더십 있는 감독, 홈 어드밴티지, 국민들의 응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이 해보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선수들이나 국민들이 공유된 '꿈'을 향해 한마음으로 준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응원하였기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나도 아빠가 되어 내 아이와 아이의 또래 친구들에게 꿈이 뭔지를 물어 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요즘 아이들은 꿈 자체도 구체적이고, 다양한 경우가 많다. 물론 수시로 바뀌지만 가수, 작가, 패션 디자이너, 한의사, 봉어빵 장수가 최근에 들은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었다. 물론 왜냐고 물으면 대개는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아이들 눈으로는 나름 매력적이고,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 세대가 그 또래였을 때에는 역시 대통령, 군인 이런 것들이 대세였다. 이에 못지않게 과학자를 꿈으로 가진 아이들이 많았고, 나도 그 중의 하나였다. 최소한 현재 최고의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사나 변호사를 꿈으로 가진 아이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현재 내 아이가 갖는 꿈에 대한 느낌처럼 아주 계산적이거나 현실적인 판단으로 장래의 꿈을 정한 것 같지는 않다. 재미있는 것은 공과대학의 동기들, 심지어 연구소 동료들의 어릴 적 꿈이 과학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계공학과에 입학하였을 때 과동기 중에는 로봇 태권브이를 만들기 위해 온 친구도 있었다. 한창 꿈을 키웠을 나이에 과학자라는 직업이 흥미롭고, 유익하고,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어릴 때 가졌던 꿈에 대한 이야기는 가끔 동료 연구원들과의 술 자리에서 신세 한탄조의 진부한 주제가 되기도 한다. 하는 일이 힘이 부칠 때, 자기의 어릴 적 꿈은 과학자였고, 각고의 노력 끝에 그 꿈을 이루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라는 푸념으로 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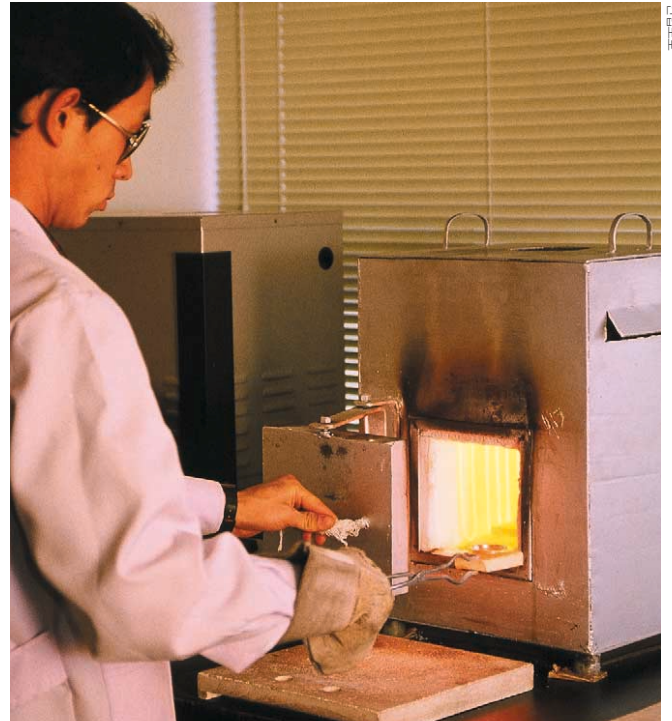
맺는다. 또 아이들이 공대 간다고 할까봐 겁이 난다는 농담 아닌 농담도 한다. 연구소에서 일한다는 것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대접 받는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일이니, 다른 전문직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의 표현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연구원들이 어릴 때 가졌던 꿈에 대한 현실과의 괴리에 따른 실망이거나 꿈이 사라진 것에 대한 허무함의 표현이라고 믿고 싶다.

연구원으로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더 해보자.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선배들이 학위를 마치면 뭘 할 거냐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국가연구소(그 때는 정부출연연구소와 구별을 못하였다)에 가서, 국가가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대답하곤 했다. 그러면 선배들이 연구소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조언을 해 주기도 하였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선배도 연구소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졸업할 즈음에 정식 연구원은 아니지만 박사후 과정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연구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그렇게 연구원 생활을 시작하여 현재의 직장에 정착한지 어느덧 8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어떻게 보면 연구원을 하게 된 계기도 어릴 적 과학자의 꿈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 참 한심하게 인생을 설계한 꼴이 되었다. 뭐 그렇다고 지금도 의식 수준이 크게 나아진 것 같지도 않다. 반성하건데 학교와 연구원에서 배우고 경험한 지식은 너무 등한시한 것 같다. 지금이라도 어디서 가르쳐 주는 곳이 있으면 속성으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다.

연구원들이 꿈을 꿀 수 있는 환경 조성돼야

얼마 전 정부출연연구원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여러 가지 출연(연)이 처한 문제점이나 해결책 같은 것들이 제안되었는데, 발표내용 중 정부출연연구원의 악순환 고리를 설명한 슬라이드가 있었다. 가령 연구소에 투자한 만큼 실적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PBS 같은 연구 관리 시스템으로 연구원을 관리하려고, 또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안 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연구원들은 단기성과에 집착하고, 과제 수주에 이리저리 보따리장수가 되고, 연구원들이 장기적인 연구에 전념하기가 어려워니, 획기적인 연구실적도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몇몇 우수한 연구원들은 자유로울지 모르나,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이러한 악순환 고리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오히려 잘 적응하여 꿈을



대덕연구단지에서 연구 중인 연구원(사진제공=연합뉴스)

잃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연구소의 모토가 '21세기 과학기술의 꿈과 미래를 상징하는 연구소'이다. 그러나 정작 이를 실현해야 하는 연구원들이 꿈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소는 연구원에게 꿈을 주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월드컵 4강 신화는 선수와 국민들이 꿈을 공유하고 같이 노력하였기에 가능하였다고 믿는다. 꿈을 꾸지 않으면 아무 것도 얻지 못하겠지만, 꿈만 가진다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닐 것이다. 연구원들이 정부 R&D 관리자, 연구소의 관리자들과 꿈을 같이 하고, 노력하고 응원해 주어야 과학기술의 꿈과 미래도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현재 정출연이 가지고 있는 악순환 고리가 깨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해 본다.

월드컵에서 우승을 할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브라질 축구대표팀 유니폼의 자랑스러운 별처럼, 내 마음 속에 꿈을 이룬 별을 달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다 잡아 본다. ㉔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